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독서교육의 발전 방향 모색

- 교과서 수록 읽기자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Reading Education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최 영 임 (Young-im Choi)*

< 목 차 >

I. 서론	1. 워크북 보조자료 개발
II. 이론적 배경	2. 온라인 독서 시스템 개발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	3. 교과서 연구회에 독서전문가 참여
2.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	4. 교수학습 방법 개선
III.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IV. 결론
1.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1. 요약
2. 교과서 읽기자료 분석	2. 제언
IV. 독서교육 발전방향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개발된 고등학교 교과서의 읽기자료 특성을 조사하여 향후 독서교육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어, 수학, 영어, 통합과학, 통합사회 주요 교과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과서의 읽기자료를 분석하였고, 읽기자료의 분석 기준은 주제 유형, 목적, 학생 활동이었다. 연구 결과, 고등학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교과서에는 인간, 자유, 문화, 환경, 지구 등 다양한 주제의 읽기자료가 각 단원의 개념과 연관되어 제시되고 있었다. 특히 국어교과는 한단원에만 '한 학기에 한권의 책 읽기'라는 단원이 신설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읽기자료가 효과적인 독서 전략이나 독서 방향에 대한 안내가 없으며, 읽기자료의 양이 부족하고 확장적 독서를 위한 자료나 정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교과서의 읽기자료가 각 단원의 학습 내용을 단순히 보충하거나 개념 이해를 위한 단편적인 단서로만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과서의 읽기자료 제시가 나열식으로 단순하게 전개되어 있으며, 읽기자료가 학생들의 독서 흥미, 독서의 내면화 그리고 독서 확장을 위한 도구로는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의 확장을 위한 읽기자료의 보조 자료를 제안하고, 교과서 구성 측면과 수업 방법 측면에 대한 제안을 통해 교과서와 독서교육의 발전적 관계를 모색해보았다.

키워드: 2015 개정 교육과정, 읽기자료, 독서, 독서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future reading education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reading materials within the high school textbook developed as the 2015 revised curriculum. For this purpose, reading materials of high school textbooks were analyzed in Korean language, mathematics, English, integrated science, and integrated social studies. The analysis criteria of reading materials were subject type, purpose, and student activities. As a result of the study, reading materials on various themes such as humanity, liberty, culture, environment, and district were presented in the integrated society and integrated science textbook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n particular,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was composed of a unit called "reading one book in one semester". However, most reading materials have no guidance on reading effective or reading direction, and lack of reading materials and information for extended reading. The reader's reading of the textbook was found to be simply supplementing the learning content of each unit or presenting fragmentary cues for conceptual purposes. This suggests that there is a lack of awareness of students' interest in reading, internalization of reading, and extension of reading. In this paper, we suggest supplementary materials of reading materials for expanding the high school textbooks, and explore the developmental relationship between textbooks and reading education through suggestions on aspects of textbook composition and teaching methods.

Keywords: 2015 Revised curriculum, Reading materials, Reading, Reading education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사서교사(comteacher1@hanmail.net)

•논문접수: 2017년 11월 20일 •최초심사: 2017년 11월 25일 •게재확정: 2017년 12월 23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4), 429-448, 2017. [http://dx.doi.org/10.16981/kliiss.48.201712.429]

I. 서론

최근 언론과 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 같은 과학기술을 통해 현실세계의 사물들을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는 과학기술 간의 경계, 실재와 가상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로, 앞선 어떤 혁명보다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 구조와 사회문화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모바일 등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미래사회를 주도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일자리의 변동으로 현재 직업군들의 일부는 대체되어 일자리가 감소하나 인공지능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이런 변화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문화나 체계가 도래 할 것으로 예측되며,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새로운 교육과정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인간이 지닌 능력은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더 보완하거나 강화해야 하고,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학교현장에서 학습하는 지식의 생존주기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내용 대부분은 20년이 지난 후에는 전혀 쓸모없는 지식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과학기술과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 끊임없이 사고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습이 요구된다.

이런 상황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시기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미래사회의 끊임 없는 변화를 읽고 파악하는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학습자는 문제 현상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및 해결능력이 필요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학습경험의 질 개선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전은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 강화,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이 가능한 교과 교육과정 마련, 학습량의 적정화 등으로 총론의 개정 방향에 반영되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별 핵심 역량을 도입하고 강조하고 있으며, 단원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내용 체계의 재구조화와 학습량 적정화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과거의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교과의 기본적인 소양과 창의융합적 사고나 의사소통 능력 함양이 필요하다.

단일 교과의 기본적인 소양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내용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라 사료된다. 창의융합적 사고는 타교과목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목과의 연계를 위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하고, 학습자의 지식 확장과 창의적 사고

과정을 위한 독서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단일 교과와 기본적인 소양이외에 학습자의 주도적인 학습을 위한 독서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5 개정 교과서도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국어 과목의 ‘독서와 문법’ 선택과목을 제외한 교과에서는 학습 목표를 위한 읽기 자료만 제공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판된 도서를 다시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어과 선택과목으로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 대한 논문은 다수 있었지만 대상이 국어교과에 한정되어 있으며, 국어과 교사들의 효율적인 지도방안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전 교과에 해당되는 ‘독서’와 관련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과서에 대한 보완차원으로 고등학교 교과서 수록 읽기자료를 고찰하여 독서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 교과인 국어, 수학, 영어, 통합과학, 통합사회 교과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교과 독서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독서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교과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독서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조자료인 워크북을 재구성하고, 독서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의해 기존 교육과정이 개정된 것으로, 2015년 9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고시된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2018년부터 학년별로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표 1>¹⁾과 같이 ‘앞으로의 교육 모습’을 구상하면서, 학생 참여 중심의 창의적 사고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기대하는 교육 모습

앞으로의 교육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개념 중심의 학습 내용 구성 • 진도에 급급하지 않고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통한 학습 흥미도 제고 • 창의적 사고 과정을 통한 선도형 창조 경제를 이끌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앞으로의 교육 모습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 실행하기 위해서

1) 교육부, 2015b, p.5에서 일부를 발췌함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8권 제4호)

는 국가 수준, 시·도나 지역수준, 학교의 특성이나 실정에 적합하도록 고시된 국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박창연(2015)과 이근호 외(2015)는 새로운 교육과정 적용과 관련하여 시기와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교과 교육과정을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의 결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 보다 대부분의 교과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교과별 주요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중심의 개정을 통해 배움을 즐기며, 개인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개정 방향으로 설정하였다.²⁾ 핵심역량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를 말하며, 초·중등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가 길러야 할 기본적인, 필수적이며, 보편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교육 활동을 통해 길러지는 핵심역량(일반역량)과 교과 학습의 결과로서 기대되는 능력인 교과 역량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³⁾ 교과 역량은 <표 2>⁴⁾와 같이 교육과정 총론 중 핵심역량 취지를 반영하여 교과별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표 2>를 살펴보면 총론의 핵심역량을 근거로 교과 역량을 개발하였지만 모두 구현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문제해결역량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다수의 교과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식 정보처리 역량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축적하고 처리 및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간은 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의 독서활동을 하게 되므로 이런 점에서 다른 역량에 비해 특히 독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에서 빗금친 부분은 독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지식 정보처리 역량만 선별한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점 사안은 각 교과마다 교과가 지닌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중점 사안은 국어과 교과 역량 선정, 국어과 교과 구조의 개선,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 독서교육과 한글교육의 강화, 교육과정 문서체계의 개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 2015b).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 내용은 핵심개념 중심으로 내용체계의 재구조화 및 성취

2)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창의재단, 2015a, p.1.

3)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창의재단, 2015a, p.31.

4) 교육부, 2015c, p.3; 교육부, 2015d, p.3; 교육부, 2015e, p.4; 교육부, 2015f, p.3; 교육부, 2015g, p.3; 교육부, 2015h, p.1, p.15, p.29 ; 교육부, 2015i, p.96.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함.

기준 제시 방식의 변화, 학습자 참여형 수업 강조,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강화, 독서 활동 강화, 입문기 한글 교육의 강화 등이다. 특히 독서 활동 강화를 위해 따로 ‘한 학기 한권의 책 읽기’를 만들어 독서를 강조하고 있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의 일반역량을 바탕으로 사회과의 성격을 반영하여 학습의 결과로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역량들을 중심으로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 정보활용능력 등을 사회교과 역량으로 제시하였다(교육부, 2015d, p.3).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역량강화, 학습량 적정화 및 통합적 구성 등을 강조하면서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별 내용 구성에서도 변화가 있었으며, 다양한 현상을 통합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읽기 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다른 교과들과 마찬가지로 총론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수학 교과역량을 도입하였고,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으며, 각종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의 해결책으로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실생활 중심의 통계 내용 재구성, 공학적 도구의 활용 강조 등이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에 포함되어 있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5, 17-23).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소재의 읽을거리를 제시하여 수학의 흥미와 가치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표 2〉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교과별 역량

교과	핵심역량 및 교과 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국어과	자기 성찰·계발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사회과		정보 활용 능력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
수학과		정보 처리 역량	창의융합 역량		의사소통 역량		문제 해결 역량, 추론, 태도 및 실천 역량
과학과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영어과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영어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변화의 핵심은 ‘통합’에 있다. 자연 현상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융·복합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핵심 개념(big Idea)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교과 간

또는 교과 내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또한 과학과 핵심역량을 추출하여 정립하고,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기존의 내용요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재구성하여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인 내용, 학생들이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제시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이해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2015). 또한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을 촉진하며, 과정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본으로 하여 ‘자기관리역량’, ‘공동체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이 포함 된다.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영어과 교육과정 구성 체계를 재구조화하였고 내용 체계표 구성에서는 특히 학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교화 하였다. 성취기준 위계를 정교화하고, 영어교사나 교과서 개발자들이 성취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성취기준에 대한 해설과 함께 성취기준별 교수 학습 활동과 평가 방법을 예시로 제공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형식을 학년 급별로 구분하여 제안함으로써 교사뿐만 아니라 교과서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년급을 막론하고 문학 영역지도를 보다 강조하였다.

교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종합해 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독서교육을 따로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교과와 독서교육의 연결이 미흡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읽기자료가 덜 중요했던 것에 비해 2015 개정 교과에서는 읽기자료의 비중을 크게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교과별 교육과정에 풍부한 읽기자료를 수록하여 독서교육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교과서와 관련된 연구는 2018년에 사용될 2015 개정 교과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연구들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교과의 독서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독서교육이 교과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읽기자료가 어떻게 수록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1.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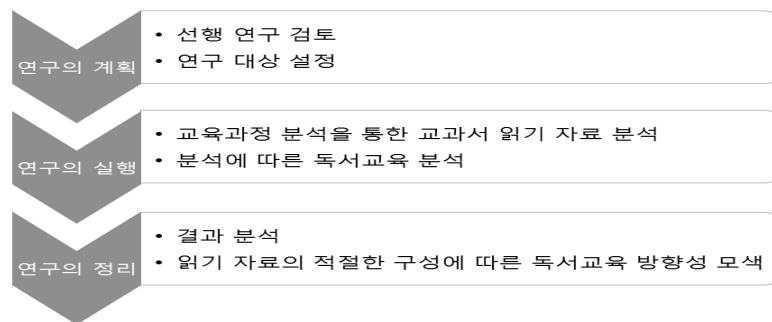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 수록된 읽기자료의 구성을 통해 고등학교 독서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교과서를 출판사별⁵⁾로 분석한 결과, 검인정 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의 ‘성격’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집필되었다. 읽기 자료는 교육 과정에 제시된 핵심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사, 최신 이슈 등을 반영한 제재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학습 목표와 관련된 주요 개념과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록 제재와 제재 유형은 출판사별 집필진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읽기 자료가 지향하는 바는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도구로의 의미가 있을 뿐 교과서의 전개 형식은 비슷하였다. 본 연구는 출판사의 다양성 분석 보다 과목별 분석에 초점을 두어 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강조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 과목을 통한 창의융합적인 독서교육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는 총 3단계의 절차를 통해 출판사를 선정한다. 1단계는 교과서 출판사를 과목별 교과협의회를 통해 3순위까지 추천한다. 2단계는 학교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출판사 순위를 심의한다. 3단계는 학교장의 최종 승인으로 출판사가 선정된다. 이에 본 연구는 A고등학교에서 최종 확정된 출판사에서 발행한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 교과 5개로⁶⁾ 제한하였고, 구체적으로 2018년도에 1학년 학생들에게 사용될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교과서를 대상으로 교과별로 읽기 자료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교과서 구성 및 특징, 주제 유형별, 목적별, 학생들의 활동 유형 등에 따라 분석하여 살펴보고, 독서교육의 바람직한 구성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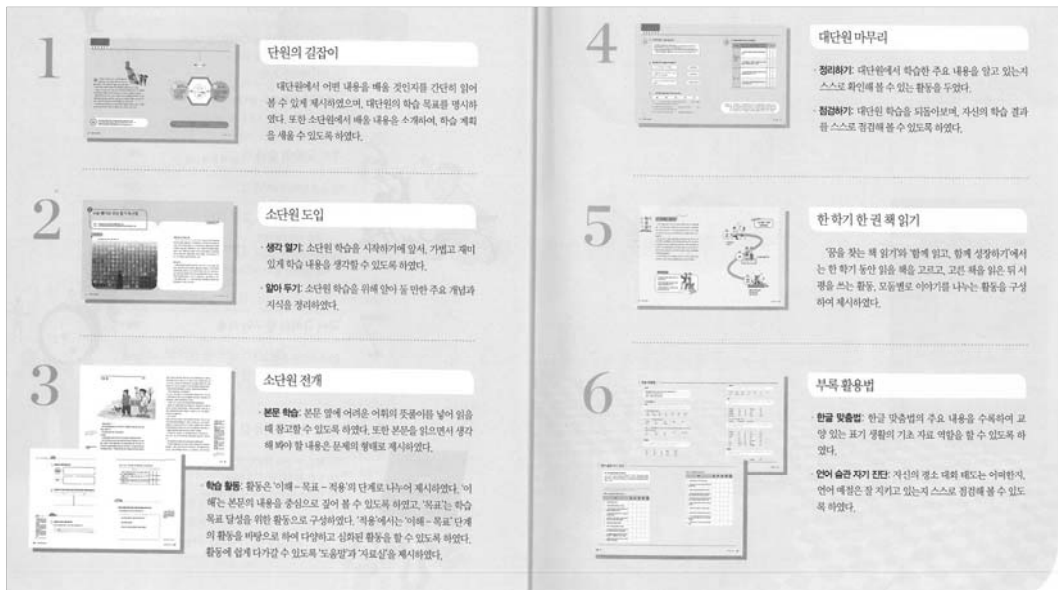
5) 2015 개정 교육과정 검인정 교과서는 국어 11종, 수학 9종, 영어 11종, 통합사회 5종, 통합과학 5종 등으로 출판되었음.
 6) 국어(해냄에듀, 정민 외 26인), 수학(좋은책신사고, 고성은 외 6인), 영어(지학사, 민찬규 외 7인), 통합사회(비상교육, 박병기 외 11인), 통합과학(비상교육, 심규철 외 11인).

2. 교과서 읽기자료 분석

가. 교과서 구성 및 특징

(1) 국어

2015 개정 국어 교과서(해냄에듀)에서 제시된 구성과 특징의 사례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국어 교과서 자료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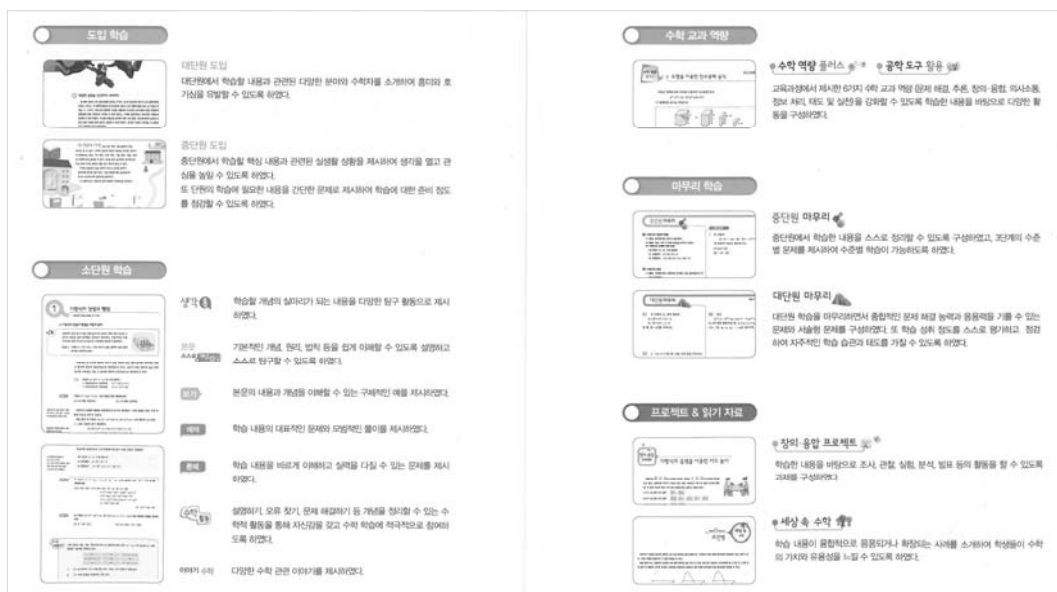
‘소단원 전개’의 ‘생각 열기’에서는 시나 읽기 자료를 통해 소단원 학습을 위해 알아야 할 주요 개념과 지식을 정리하고 있다.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은 본문의 읽기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학습 활동은 ‘이해-목표-적용’의 단계를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적용’에서는 ‘이해-목표’ 단계의 활동을 바탕으로 심화된 읽기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읽기 자료는 다양하고 심화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대단원 마무리는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를 구성하여 진로나 학생들의 관심사와 관련된 책을 찾아 읽도록 하였다. 교과서는 책을 고르는 방법과 독서 일지 작성법 및 독서 일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책을 읽고 질문에 따라 내용을 생성하는 활동을 통해 읽기 태도를 성찰하고 점검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였다.

국어 교과서의 읽기 자료는 단원의 목표에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단원 내용의 부분적인 확장만 다루고 있다. 읽기 자료는 작품 감상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 자료만 수록되어 있어, 단원 학습 후 학생들의 확장적인 독서활동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동백꽃’ 작품을 배우고, ‘동백꽃’ 작품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 동일 작가나 동 시대 작가에 대한

작품 분석 및 작품 비평, 주제가 갖는 역사성 등을 더 찾아보려고 해도 자료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 물론 교과서에 부족한 내용을 수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련 단원의 확장적 차원에서 또는 심화된 이해를 돕기 위한 워크북의 보충 자료가 필요하다.

(2) 수학

2015 개정 수학 교과서(좋은책신사고)에서 제시된 구성과 특징의 사례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수학 교과서 자료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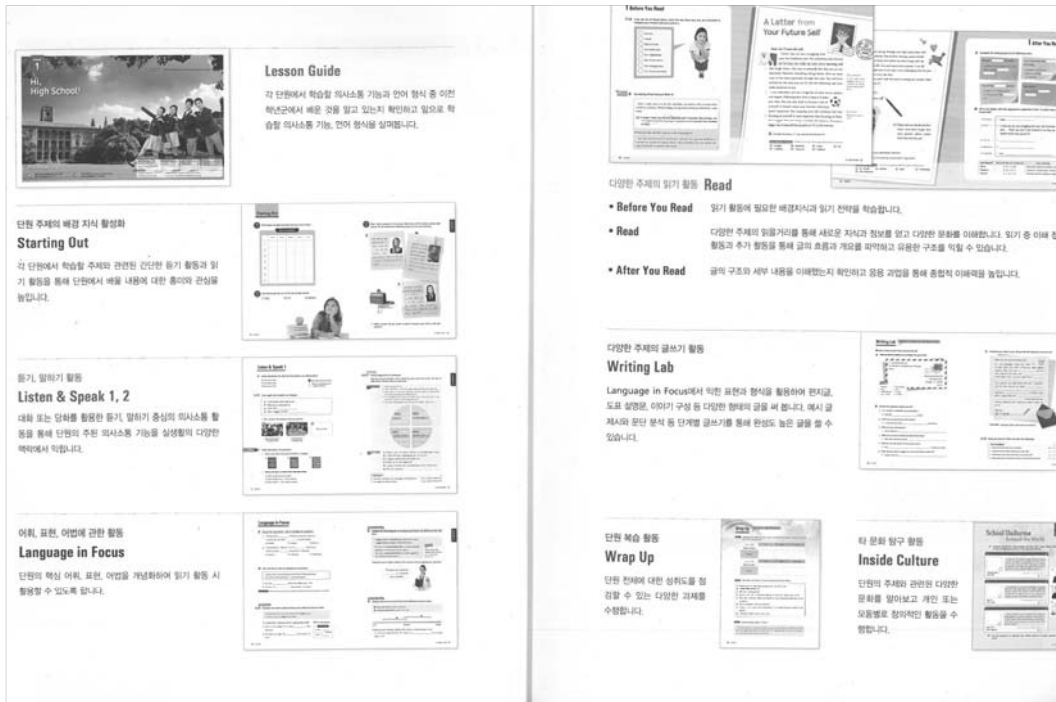
‘도입 학습’은 대단원에서 학습할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와 수학자를 소개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중단원 도입’에서는 실생활 상황을 제시한 읽기자료를 통해 생각을 열고 관심을 높이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소단원 학습’의 ‘이야기 수학’은 수학 관련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프로젝트&읽기 자료’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관찰, 실험, 분석, 발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읽기 자료를 구성하였고, ‘세상 속 수학’은 학습 내용이 융합적으로 응용되거나 확장되는 사례를 소개하여 학생들이 수학의 가치와 유용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읽기 자료는 수학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확장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예를 들면 유클리드에 대한 소개를 보면 ‘당시 알려진 정수론 및 기하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원론을 집대성한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수학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의미나 저서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 학생들이 수학적 문제와 연결되는 수학 관련 서적을 통해서 문제

풀이 방식뿐만 아니라 수학적 사고 양식을 수용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3) 영어

2015 개정 영어 교과서(지학사)에서 제시된 구성과 특징의 사례는 <그림 4>와 같다. ‘Starting Out’에서는 읽기 자료를 통해 단원 주제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있다. ‘Read’에서는 읽기 활동에 필요한 배경지식과 읽기 전략을 학습하고 있다. 다양한 주제의 읽기자료는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학생들의 종합적인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구성되었다. ‘Inside Culture’는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읽기자료를 통해 개인 또는 모둠별로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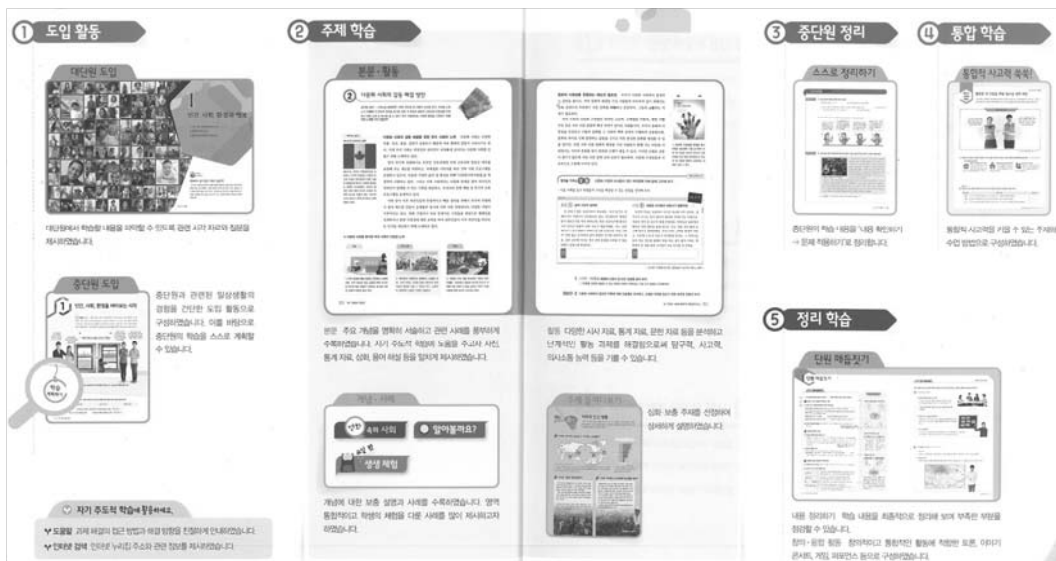


<그림 4> 영어 교과서 자료 예시

그러나 단원의 읽기자료는 단원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예를 들면 ‘화성에 대한 소개’에 있어서 너무 기본적인 내용만 소개되어 있고, 화성과 천문학의 연결 고리나 학생들의 미래적 상상력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 화성과 관련된 확장된 추가 자료를 통해 단원의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영어 교육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4) 통합사회

2015 개정 통합사회 교과서(비상교육)에서 제시된 구성과 특징의 사례는 <그림 5>와 같다. ‘도입 활동’의 ‘질문으로 시작하기’는 대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주제 학습’의 ‘본문 활동’은 주요 개념의 이해와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해 읽기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개념 사례’는 개념에 대한 보충 설명과 ‘생각을 키우는 활동’을 위한 읽기 자료를 제시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단계적인 활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 들여다보기’는 심화보충 주제를 선정하여 수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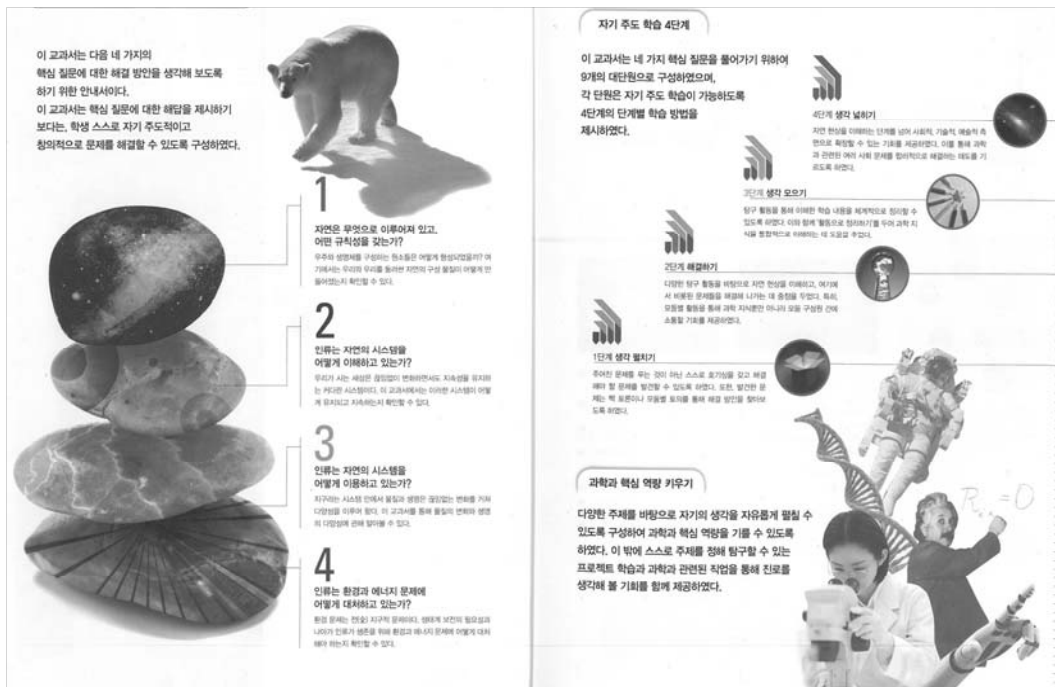
<그림 5> 통합사회 교과서 자료 예시

그러나 읽기 자료의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생각을 키우는 활동’에서 루소가 말한 명언만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고, 그 명언이 갖는 맥락이나 루소의 저작 속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에 대한 소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추가 자료가 제공되어있지 않아 학생들은 단편적인 내용을 파악할 뿐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학생들의 사회 과학적 지식 확장을 위한 거점이 마련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5) 통합과학

2015 개정 통합과학 교과서(비상교육)에서 제시된 구성과 특징의 사례는 <그림 6>와 같다. ‘1단계 생각 펼치기’는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호기심을 유도하기 위해 읽기 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며, ‘2단계 해결하기’는 과학 지식뿐만 아니라 탐구 활동을 위한 읽기 자료가 구성되어 있다. ‘4단계 생각 넓히기’는 과학 지식을 확장하기 위한 읽기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과학

교과서의 특징은 핵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학생 스스로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6〉 통합과학 교과서 자료 예시

그러나 읽기 자료가 다양한 매체나 도서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4단계 생각 넓히기’에서 ‘단백질 입자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읽기 자료는 신문 기사 자료로만 구성되어 있다. 교과서 지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짧은 신문 기사를 참고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학생들이 ‘단백질 입자와 구조’를 짧은 신문 기사로 전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추가적으로 신문 기사와 관련된 과학 이론서나 과학도서가 연계되어 안내된다면 학생들의 학문적 깊이와 확장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학생들이 관련 자료의 추가 자료를 통해 단편적인 지식의 획득뿐만 아니라 관련된 연구 분야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 분야를 찾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5개 교과서에 나타난 읽기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3가지 한계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자료 측면에서 학생들이 확장할 수 있는 안내와 지침이 부족하다.

둘째, 교사 측면에서 수업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독서활동으로 확장하기 위한 안내가 부

족하다.

셋째, 학생 측면에서 독서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활동과 사고 과정을 연계하기 위한 추가 데이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독서활동을 위한 워크북 형태의 자료 개발이 요구된다. 워크북은 학생들의 활동을 위한 도구로 개발되어야 하며, 교사가 워크북을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활용 프로그램이나 활용 방안에 대한 연수 및 연구가 필요하다.

나. 주제 유형별 분석

교과서의 읽기 자료의 주제 유형은 아래 <표 3>과 같다. 국어 교과서 읽기 자료는 문학과 관련된 자료가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수학 교과서 읽기 자료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근하고 재미있는 소재와 내용으로 수학의 흥미와 호기심 유발 및 즐거움을 주고 있다. 수학적 개념을 실생활에 접목하여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수학이 미래 직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읽기 자료를 소개하여 학생들의 수학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타교과목과 연계된 읽기 자료를 통해 수학 교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영어 교과서 읽기 자료는 인문사회·과학 기술 분야의 소재를 골고루 다루고 있으며, 실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현장감 있는 상황을 소재로 한 자료들이 많다.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읽기 자료를 수록하여, 단순히 영어라는 언어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나 타 과목 연계를 통한 실용적인 정보와 기초 학문 영역의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통합사회 읽기 자료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일상생활의 소재나 핵심 개념과 관련된 융복합적 소재를 제시하고 있다. 5개 교과서의 구체적인 주제 유형은 <표 3>과 같다.

그러나 독서가 주제 유형별로 교과마다 분절화 되어 있어 통합적 독서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과학 기술’이 여러 과목에서 주제로 다루어져 있지만 통합 독서교육 측면에서 보면 교과에서 수록된 읽기 자료의 연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통 독서 목록과 선택 독서 목록이 마련되어야 하며, 목록이 교육과정에서 어떤 순서로

<표 3> 교과별 주제 유형

교과	주제 유형
국어	시 작품, 직업 관련, 교육 관련, 문학 관련, 인물, 문화, 역사, 다양한 담화 자료 및 매체 자료 등
수학	필즈상, 수학이야기, 카드놀이, 직업 관련, 과학, 운동 경기, 동물, 역사, 자연, 예술, 컴퓨터, 환경, 암호, QR코드, 혈액형, 자동차, 로봇 공학 등
영어	직업 관련, 색채 관련, 음악, 음식, 여행, 환경, 동물과 식물, 문학 관련, 다양한 문화, 사회, 인권, 세계 시민 의식, 과학 기술 등
통합사회	자연환경, 생활공간, 인권, 시장, 정의, 문화, 세계화, 지속 가능한 삶 등
통합과학	우주, 지구, 직업 관련, 외계 생명체, 단백질 입자 구조, 방사광 가속기, 문화, 생물, 신소재, 중력, 안전장치, 안전사고, 환경, 화산, 지진, 인공 세포막, 효소, 유전자, DNA, 화석 연료, 비료, 소독약, 전기 자동차, 전기 에너지, 과일, 최신키 기술 등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교과 전문가들이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전에 협의를 통해 독서 목록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에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다. 목적별 분석

읽기 자료의 목적을 위해 5개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학습 목표를 바탕으로 해당 단원의 학습 내용이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읽기 자료가 제공되었다. 읽기 자료들은 해당 단원의 학습 내용이나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거나 심화된 수준으로 제시한 것들이 많았다. 국어 교과서 읽기 자료는 소단원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배치하여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소단원 전개의 ‘적용’에서는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개념을 심화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수학 교과서 읽기 자료는 ‘도입 학습’과 ‘소단원 학습’에서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수학적 상황의 내용으로 선수 학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프로젝트&읽기 자료’는 세상 속 수학을 통해 수학의 유용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영어 교과서 읽기 자료는 ‘Read’에서 소단원의 핵심 개념을 보충하거나 지식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nside Culture’는 타문화와 타교과와의 연계를 통한 개념을 심화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통합사회 교과서 읽기 자료는 ‘개념·사례’ 부분에서 소단원의 주제와 적합한 읽기 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하여 개념을 보충하거나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주제 들여다보기’는 사회교과의 개념을 심화할 수 있는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통합과학 교과서는 소단원 시작부분인 ‘생각 펼치기’와 소단원 마지막 부분인 ‘해결하기’에서 과학 지식을 제공하는 읽기 자료를 수록하였으며, ‘생각 넓히기’에 핵심 개념을 학생들이 스스로 읽힐 수 있는 개념 심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소단원 마지막 ‘해결하기’는 과학 역량을 기르기 위한 자료를 구성하고 있다. <표 4>는 읽기 자료의 목적을 개념 보충, 개념 심화, 지식 제공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자료이다. 대부분 교과서는 개념 보충, 개념 심화, 지식 제공을 위해 읽기자료가 부가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표 4> 교과별 읽기 자료의 목적

교과	읽기 자료의 목적		
	개념 보충	개념 심화	지식 제공
국어	소단원 도입 (알아두기)	소단원 전개 (적용)	소단원 도입 (알아두기)
수학		프로젝트&읽기 자료 (세상 속 수학)	도입 학습, 소단원 학습 (이야기 수학)
영어	Read	Inside Culture	Starting Out, Read
통합사회	주제 학습, 개념·사례	주제 들여다보기	개념·사례
통합과학	해결하기 (과학과 생활)	생각 넓히기	생각 펼치기, 해결하기 (최신 과학)

라. 학생 활동 유형 분석

학생의 활동 유형은 교과서 읽기 자료를 읽은 후 기대되는 학생들의 활동이나 사고, 지식의 변화 등을 판단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과서 읽기 자료를 읽은 후 조사, 토의 및 토론의 활동을 유도하는 경우와 흥미를 유발하는 목적으로 제시된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읽기 자료 후 프로젝트 활동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5> 교과별 학생 활동 유형

교과	학생 활동 유형
국어	읽기 자료를 읽은 후 후속 질문 및 자유 탐구 주제가 제시되어 학생들의 의견을 구성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안내된 읽기 자료
수학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수학적 상황 자료를 읽고 다양한 형식의 수학 탐구활동을 하고, 창의·융합 프로젝트가 가능한 읽기 자료
영어	단원 도입인 'Starting Out' 에 짧은 읽기 자료를 읽고 단원의 개념을 이해하는 활동과 본문의 주제에 적합한 확장된 활동과 프로젝트 활동이 가능한 읽기 자료
통합사회	도입 활동에 실생활 사례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하며, 통합 자료를 활용하여 모듈별 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이 가능한 읽기 자료
통합과학	소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배경지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탐구 활동과 소단원 및 중단원 마무리의 문제 해결 과정이 가능한 읽기 자료

교과서 읽기 자료를 분석한 것을 종합해 보면 <표 6>과 같다. 교과서 구성 및 특징에서 교과별에 따라 읽기 자료의 제시 순서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배경 지식의 확장을 위해 배치되었으며, 소단원 및 중단원의 마무리로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있었다. 읽기 자료의 주제 유형은 교과서별 단원의 목표에 적합한 주제들을 선택하여 읽기 자료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교과별로 중복되는 주제가 나타났다. 예를 들면 사회, 문화, 직업과 관련한 교과, 기술 등이다. 읽기 자료의 목적은 개념 이해, 개념 심화, 지식 제공으로 단원의 성격에 따라 혼합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 활동 유형은 읽기 자료를 읽은 후 자료조사, 탐구활동, 토론 및 토의 활동, 프로젝트활동 등의 활동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양한 학생 활동 양식이 부족하며, 다양한 양식이나 틀을 제공하는 워크북이 개발된다면 밀도 있는 수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표 6> 읽기 자료의 분석 기준과 범주

분석 기준	범주
교과서 구성 및 특징	교과서 단원의 구성과 교과서 특징
읽기 자료의 주제 유형	인문, 사회, 과학 기술, 공학, 환경, 예술, 수학, 로봇 등
읽기 자료의 목적	개념 이해, 개념 심화, 지식 제공
학생 활동 유형	자료조사, 탐구활동, 토론 및 토의 활동, 프로젝트활동 등

IV. 독서교육 발전방향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총론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교과 핵심역량을 재정립하여 교과서를 개발하였다. 물론 문제해결역량은 교과에서 제외되지만 대부분은 총론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교과서가 개발되었다. 본 논문은 교과의 지식정보 처리역량을 위한 읽기 자료를 분석하여 독서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1. 워크북 보조자료 개발

교과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읽기 자료가 수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기 자료의 양이 부족하거나, 독서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부족하고, 학습자가 소단원을 학습한 후 추가 독서를 위한 자료 제시 등이 부족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발된 교과서가 2018년 신입생부터 사용되기 때문에 현재 수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교과서를 보충할 수 있는 워크북이 필요하다.

가. 워크북 목록 개발

기존 교과의 교과서 읽기 자료를 소개하거나 보충하는 워크북을 위하여 교과 공통 주제에 적합한 도서 목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도서 목록은 타교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공통 목록(필수 목록)과 단일교과의 개별 목록(선택 목록)을 구분한다.

독서 워크북은 학습자의 적정량을 고려하여 1학기 최소 5권~6권의 공통 목록과 최대한 교과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 목록으로 선정한다. 공통 목록의 경우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학습자에게 과제를 주어 독서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교과는 공통 목록의 독서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교과 수업을 시작한다. 교과의 선수학습이나 배경지식의 확장으로 필요한 도서라면 학습자가 단편적으로 읽기 자료를 읽을 때 보다 확장된 사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개별 목록은 교과서 내용의 보충이나 심화 및 지식 제공을 위해 안내 자료로 활용한다. 교과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할 때 개별 목록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독서 워크북은 목록뿐만 아니라 독서 전략 소개, 독서 방법, 수행평가를 위한 자료 검색에 대한 안내 사이트 등의 내용을 수록하여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 독서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공통 목록 평가 시기 및 평가 방법

3월의 마지막 주에 공통 목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도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를 통해 학습자가 도서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해가 부족한 학생은 가정에 요청하여 적극적으로 독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평가 방법은 독서 퀴즈나 모듈별로 독후 활동지를 해결할 수 있는 학습활동으로 구성한다.

2. 온라인 독서 시스템 개발

스마트 교실이 증가하면서 학교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 과거 교사가 만든 자료를 수업시간에 제공하여 수업이 진행되었지만 선진학교에서는 온라인의 자료나 콘텐츠를 수업시간에 제공하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학습자는 자료 접근성이 편리하고, 최신 자료를 신속하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런 장점을 활용하여 온라인 독서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온라인을 통해 읽기 자료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시스템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자가 독후 활동한 내용을 여러 학습자와 함께 공유함으로써 토론 및 토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이런 장을 통해 학습자는 지식정보 처리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3. 교과서 연구회에 독서전문가 참여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개발된 교과서 사용은 2018년부터이다. 개정 교과서 사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자료 제공 및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전문성 강화 연수를 제공해야 한다. 교과군 내의 교과서 단원과 성취기준의 배치 순서에 대한 연구와 통합형 자료 개발을 위해 교사 연구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 연구회 조직을 할 때 독서전문가 참여를 권장한다. 독서전문가는 다양한 자료에 대한 이해, 독서 전략, 독서 방법, 아동 발달에 따른 독서 자료 등의 지식이 풍부하다. 교과 교사와 함께 연구회를 진행한다면 교과의 전문적 지식과 독서전문가의 독서에 대한 지식이 시너지를 이루어 학습자의 독서교육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4. 교수·학습 방법 개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중심의 개정을 통해 학습자가 배움을 즐기며, 개인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교실 수업 개선을 강조한다. 현재 교과와 관련하여 거꾸로 수업이나 하브루타 수업 등으로 방법을 개선하고 있지만 독서와 관련된 평가는 국어과를 제외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과의 수행평가를 과제 독서로 진행하기를 제안한다.

과제 독서는 워크북 공통 목록에 대한 평가를 앞에서 언급했지만 국어과에 그동안 국한 시

켰던 독서를 전 교과 과제 독서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공통 목록이나 개별 목록에 대한 독서를 수업 전, 중, 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과제 독서를 수행하기 위해 학습자의 개인 독서와 협동 독서로 분류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과의 과정 중심에서의 수행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평쓰기, 주제별 소논문 작성, 사제동행 독서활동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는 곧 교수·학습 방법에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IV.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개발된 교과서의 읽기 자료를 분석하여 독서교육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핵심역량을 조사하였고, 교과의 핵심역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지식 정보처리 역량은 독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주요 5개 교과서의 읽기 자료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5개 교과서의 읽기 자료는 교과서 구성 및 특징, 주제 유형별, 목적별, 학생 활동 유형 등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교과서의 읽기 자료의 구성 및 특징을 살펴본 결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읽기 자료는 제시 순서가 교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그러나 대부분 교과학습을 위한 배경 지식 확장을 위해 배치되었다.

둘째, 읽기 자료의 주제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사회, 문화, 직업과 관련한 교과, 기술 등과 주제가 주요 5개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교과서별 단위 목표에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여 읽기 자료를 제시하였다.

셋째, 읽기 자료의 목적은 교과서 개념 이해, 개념 심화, 지식 제공으로 단원의 성격에 따라 혼합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학생들의 활동 유형을 살펴본 결과, 읽기 자료를 읽은 후 자료조사, 탐구활동, 토론 및 토의 활동, 프로젝트활동 등의 활동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타교과간의 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과간의 유기적인 관련성은 찾을 수 없었다. 또한 독서교육은 국어 교과서에 강조되고 있을 뿐 다른 교과는 소단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읽기 자료의 나열로 학습자의 추가 독서 확장을 위한 안내는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앞으로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워크북 보조자료 개발, 온라인 독서 시스템 개발, 교과서 연구회에 독서전문가 참여,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2015 개

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와 독서교육의 발전적 관계를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제언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과 도출된 결론을 위해 앞으로 후속되어야 할 연구문제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워크북 활용과 독서 자료의 활용에 대한 추후 교사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교과교사와 독서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실제 현장에 사용될 수 있는 독서 워크북 개발 연구와 효과에 대한 검증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향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융합독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별 기본 목록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성은 외 6. 2017. 『수학』. 서울: 좋은책신사고.
- 교육부. 2014.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 세종시: 교육부.
- 교육부.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1호 [별책 1]].
- 김창원 외 28. 2015a.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초안 검토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자료 ORM 2015-56-2.
- 민찬규 외 7. 2017. 『영어』. 서울: 지학사.
- 박병기 외 11. 2017. 『통합사회』. 서울: 비상교육.
- 박창연. 2015. 교육과정 결정에서 정부와 교육과정 관련 기구의 역할에 대한 문제와 개선 방안 탐색. 『교육과정연구』, 33(4): 145-172.
- 소경희.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이 남긴 과제: 각론 개발의 쟁점 탐색. 『교육과정연구』, 33(1).
- 송진웅. 2014. 『문이과 통합형 과학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 세종시: 교육부.
- 이근호, 이병천, 가은아, 이주연, 김현숙. 2015. 『국제비교를 통한 국가 교육과정 적용 체제 개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5-6.
- 정대홍 외 11. 2017. 『통합과학』. 서울: 금성출판사.
- 정민 외 28. 2017. 『국어』. 서울: 해냄에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Ⅱ-국어과 교육과정』.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창의재단. 2015.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Ⅱ-국어과 과정』.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Go, Sung-Eun et 6. 2017. *Matematics*. Seoul: GoodbookSinsago Press.
- Jong, Min et 28. 2017. Korean. Seoul: Heneamedu press.
- Jung, Dae-Hong et 11. 2017. *Integrated Science*. Seoul: Goldstar press.
- Kim, Chang-Won et 23. 2015. *A Study on Directionn of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Development Through Teachers' Planning-National Curriculum of Korean*. KEDI Research Report CRC 2015-25-3.
- Kim, Chang-Won et 28. 2015a. *The Study on Direction of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Korean Development*. KEDI Research Report ORM 2015-56-2.
- Lee, Kun-Ho, Lee-Beung-Chon, Ka, Eun-Ah, Lee, Ju-Yun, Kim, Hyun-Sook. 2015. *The Study Development of Adapt Revised National Curriculum with Competitive Countries*. KEDI Research Report RRC 2015-6.
- Min, Chan-Kyu et 7. 2017. *English*. Seoul: Jihak press.
- Ministry of Education. 2014. *2015 Integrated Education curriculum of Liberal arts and natural sciences the General Guidelines*.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Development.
- Ministry of Education. 2015. *2015 National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No. 2015-71]
- Park, Beung-Gi et 11. 2017. *Integrated Society*. Seoul: Visang press.
- Park, Chan-Gun. 2015. "An Analysis of Problems and Legal Directions in the Roles of the Government and Mechanisms Related to Curriculum Decision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3(4): 145-172.
- So Kyung-Hee. 2015. "Issues in the general guideline draft for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Remaining tasks for subject matter curriculum development."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3(1).
- Song, jin-Oug. 2014. *A Study on the Reconstruction of integrated Science Education curriculum of liberal arts and natural sciences*.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Development.